

대림절 제1주/2021년 11월 28일

구약: 예레미야서 33,14-16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3,9-13

복음: 누가복음서 21,25-36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1. 오늘은 대림절 첫번째 주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주일이자, 교회력에 따르면 한 해를 시작하는 주일이지요. 한 해의 마지막과 한 해의 시작, 바로 그 한 가운데 있는 날이 대림절 첫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11월 26일)은 이른바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11월의 넷째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 날로, 미국에서 연중 가장 큰 규모의 쇼핑이 행해지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녀나 손자들에게 줄 성탄절 선물도 이 때 구입하는데, 거대한 쇼핑센터마다 이미 성탄절 장식으로 번쩍이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에게 대림절은 기대와 설레임의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서 저자는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 두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미지와 은유로 대림절 첫번째 주일, 한 해의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에 이어(눅 21,20-24), 예수님은 우주적 파국과 세상의 파멸을 예언하시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눅 21,25-26).

한 해의 시작이 평화의 왕,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해와 달이 멈추고(하박국 3,11), 어두어지며, 별들이 빛을 잃고(요엘서 3,15),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며(이사야서 34,4), 땅이 진동하고 온 하늘이 흔들릴 것(요엘서 2,10)이라는 유대 묵시문학이 전망하는 우주의 파국과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이지요.

개기일식과 월식, 유성을 보았거나, 천둥과 번개, 지진과 해일을 경험한 고대인들의 기억이 반영된 것이겠지만, 우주의 변화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게 한다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수 없습니다. 생명은 모두 관계 속에 있고, 지구는 우주라는, 빛은 ‘다크 에너지’라는 거대한 어둠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비드-19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우주와 지구, 하늘과 땅, 자연과 인간의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때문이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 가르쳐주듯이,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 종말론을 설파하고, 위기를 조장하면서 사익을 챙깁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을 능가하는 시청률을 차지하고 있다는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에 등장하는 신흥종교 ‘새진리회’의 수장이 지옥의 사자가 찾아오는 현상이 신의 계시라고 주장하는 것도 비슷한 구도입니다. 두려움이 장사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주의 파국과 세상의 파멸 징조를 공포와 두려움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는 징조’로 해석하십니다(눅 21,28). 종말의 징조들은 세상을 포기하는 운명론이나, 패배주의, 도피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를 들게 한다’는 것이지요(눅 21,28). 세상 사람들은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지만(눅 21,26),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히 일어나 머리를 들고 인자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¹⁾ 그것은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는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난을 파멸의 징조로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1) 김득중, 누가복음 II, 대한기독교서회, 1993, 413.

만,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가까이 다가온 구원의 징조로 생각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화과나무의 변화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듯이, 세상과 자연,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깨달으라는 말입니다(눅 21,29-31).

재난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과 기쁨이고, 변화의 징조들이 누군가에게는 종말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과 기후위기가 누군가에는 종말에 대한 우울한 소식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전환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눅 21,33),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해야 한다’(눅 21,34)고 권면합니다.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눅 21,36).

재난과 재앙, 파국과 파멸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칩니다.’(눅 21,35).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호의적인 심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닥칩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2. 그렇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약속은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 위에서 드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하신 복된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고 했고(렘 33,14-16),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도록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이지요(살전 3,9-13).

기도가 서 있어야 할 반석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천사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눅 1,37)고 말했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신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며 놀라고 당황해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막 10,27)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는 믿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라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나는 할 수 없다’거나, ‘정말 이루어질까?’하는 의심과 회의가 기도하는 사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실패의 가능성을 미리 취하여 우리 자신의 의지를 방해합니다. 완전한 실망을 맛보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의 반쪽만을 걸고, 건성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원, 의지와 기도에 응답하려고 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흔들린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극복해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 간청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과 의지에 대해 분명한 생각이 있었고 솔직한 신뢰를 갖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기도 중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소원과 간구를 아뢰어야 합니다. 분열되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체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²⁾

그리고 우리는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의 사귄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2) 워르겐 몰트만, 생명의 샘 - 성령과 생명신학, 이신건 역, 대한기독교서회, 2017, 173.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요한 14:13-14).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잠자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인간의 평생의 3분의 1이 자는 시간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열린 눈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둠의 현실을 인식하라’는 뜻이고,³⁾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 함께 깨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마음과 몸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규정하기에, 기도하는 자세는 곧 기도의 마음과 내용만큼이나 중요하고, 서로를 규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전해지고 있는 기도의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세는 ‘땅에 엎드려 기도했고’(민 16,4),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출 9,33). 다윗은 ‘무릎을 꿇어앉아서’(대상 17,16) 기도했고,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시 28,2) 기도했습니다. 아삽도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렸고’(시 77,1-2), 솔로몬도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기도했다’(왕상 8,22)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자세는 엎드려, 무릎을 꿇고, 혹은 서서, 두 손을 치켜들고 성전이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워르겐 몰트만, 같은 책, 176.

유대인이었던 예수님도 유대전통을 유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고’(막 14,35), ‘무릎을 꿇고’(눅 22,41), 때로는 ‘서서’(막 11,25) 기도하셨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시기도 했습니다(마 19,13).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무릎을 꿇고’(행 9,40; 20,36; 21,5) 기도했고, 디모데에게도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권면한 것으로 보아(딤후 2,8),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3. 기도하는 자세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기도의 내용과 기도하는 상황에 따라 자세도 달라지겠지만, 결국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서서히 성장하면서 부모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귄 안으로 성장해갑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눅 18:1), 신앙은 기도를 강화하고, 기도는 신앙을 강화합니다.

우리가 아는대로, ‘기도’(祈禱)는 ‘빌 기’와 ‘빌 도’,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빌 ‘기’(祈)는 보일 ‘시’(示)와 도끼 ‘근’(斤),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데, ‘보일 시’는 ‘제사’, ‘신’(神) 등과 관련있는 부수글자로서 여기서는 ‘제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제단 앞에 두 손을 도끼날(斤) 모양으로 모으고 소원을 빌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고, 빌 ‘기’는 기도하는 ‘몸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글자인 빌 ‘도’(禱)는 제단 옆에 목숨 ‘수’(壽)가 놓여있는 형국이지요. 그렇다면 기도는 제단 위에 자기 목숨을 바치는 행위라는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빌 ‘도’는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하겠지요. 자기 목숨을 제단에 바친다는 간절함과 애절함이 이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이고 간절해야 하고, 가끔씩이 아니라 ‘늘’, 그리고, ‘깨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시간 사이에’ 살고 있는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과 시작 사이, 파멸과 창조 사이, 심판과 구원 사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 현실과 약속 사이의 긴장 속에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할 수 있고, 억압이나 실패 때문에 체념하여 방탕과 술취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해 강원용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사이-너머’(between and beyond)의 실존입니다.

<설교 후 기도>

그 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니,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심판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부족하기 짝이 없고,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여,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은혜의 주님, 바치는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살전 3,13).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주님의 복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니, 우리가 그 약속 믿고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의심이 솟구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롬 8,26).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롬 8,28), 이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게 해주시옵소

서.

갈수록 수그러들지 않는 팬데믹과 지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의료진과 간병하는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만이라도, 지구촌에서 테러와 총성과 폭력이 멎게 하시고, 가난과 차별로 고통받는 이들이 우리의 따뜻한 사랑과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